

文殊寺 腹藏織物에 관한 小考

권영숙 · 장현주*

부산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 동명정보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전임강사(기간제)*

A Study of The Fabrics for Enshrining Oblations inside a Buddhist Statue in MoonSoo Temple

Young-Suk Kwon · Hyun-Joo Jang*

Professor, Dept. of Clothing&Textiles, Pusan National Univ.

Pull-time Lecturer of Dept.of Fashion Design, Tong Myoung Information Univ.*

(2001. 7. 4 투고)

ABSTRACT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fabrics in Koryo dynasty by reviewing the fabrics for enshrining oblations inside a buddhist statue in MoonSoo temple, which are currently possessed in SooDuk temple. The research results follows :

The fabrics are 33 pieces in total : 28 pieces of normal fabrics, 5 pieces of fabrics that is used for covering the five grains, and others like variegated silk threads. Out of 33 pieces of fabrics are there 31 pieces of silk and 2 pieces of ramie.

The tabby fabrics, which have the most pieces among the fabrics, are 11 pieces in total. There are 1 piece of designed tabby fabric(紋紬), whose patterns are expressed by dyeing, as well as non-designed tabby fabric(紬). The twill fabrics are 8 pieces in total. Its patterns are mainly the type that small patterns are consecutively reiterated. And they have various patterns including plant patterns, such as lotus pattern, flower pattern, etc., animal patterns such as dragon pattern, etc., geometric patterns, such as turtoise-shell pattern, swastika, etc. The leno and gauze fabrics are 1 piece of 4-end complex designed-gauze and 1 piece of gilt gauze (金箔紋羅). The compound woven fabrics are 2 pieces of brocaded gauze(織錦羅) and 3 pieces of brocaded twill(織錦). Brocaded gauze(織錦羅) is a kind of brocaded fabrics and is made by adding a gold thread between wefts of already weaved gauze.

The figured fabrics are 1 piece of tabby fabric, 6 pieces of twill fabrics, 4 pieces of leno and gauze fabrics, and 5 pieces of compound woven fabrics. All of them are 16 pieces out of all 33 pieces and amount to almost 50%. Single-patterned fabrics, that is one pattern is expressed individually, are much more than any others. Plant patterns are the ones that are used the most.

key word : brocaded gauze(織錦羅) The figured fabrics(紋織物), designed tabby fabric(紋紬), compound woven fabric(중조직직물)

I. 서론

佛腹藏物은 봉안 그 당시의 시대상 및 문화상, 종교관을 알 수 있는 각종 문헌과 경전류, 부처님 사리, 불화 등이 모셔진 문화재의 보고이다. 우리나라는 신라 766년 지리산 석남사 석조비로자나불상의 대좌에 사리장치를 넣었던 예가 발견되어 늦어도 8세기 중반 이전에는 불상의 사리를 장치하거나 복장물을 넣는 의식이 행해졌을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에서 온전한 복장물이 발견되기 시작한 것은 고려 후기 불상으로 청원사 건칠아미타불조상, 서산부석사 금동관음보살상, 문수사 금동여래좌상이 대표적이다.

국내에서는 출토직물보다 상태가 상당히 양호하고 다양한 유형의 직물을 접할수 있으며 비교적 사용연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불복장직물에 관하여 이미 여러 차례 조사 보고된 바 있으며 특히 불교중심 사회이었던 고려시대 佛腹藏직물에 관하여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¹⁾

현재 수덕사에 소장되어 있는 문수사 복장 유물에 관하여는 1973년에 이미 충청남도 지방문화재위원회에서 금동여래좌상과 그 복장유물을 조사한 바 있으며 그 후 불상과 더불어 직물을 비롯한 복장유물 등에 대하여 보고 조사된 바 있다.²⁾ 그러나 그 당시의 보고서에는 여러가지 불복장 유물을 중심으로 다루면서 직물에 관하여는 거의 개괄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으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직물을 중심으로 그 특성을 실증적으로 고찰하여 선행연구된 고려시대 직물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II. 文殊寺 佛腹藏織物の 의의

忠淸南道 瑞山群 雲山面 胎封里에 위치한 文殊寺의 극락보전에 모셨던 金銅如來坐像內 복장품으로 모두 19종 57점이며 이것은 현재 발원문 및 직물류, 木盒一括品 등으로 알려져 있다. 복장 발원문에 의하면 志正六年丙戌九月初八日 즉 고려 忠穆王 2년

(1346)에 불상을 조성하였다는 기록³⁾ 등으로 보아 고려후기의 복장직물임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의 복장직물을 비롯한 각종 실증적인 직물자료로서는 1302년 아미타불 복장직물 다음으로 직물의 수량 및 유형이 다양하며 직물의 상태 또한 매우 양호하다. 여기에는 포폭 그대로 사용한 것에서부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잘라져 있는 것 등 다양했으며 색상 또한 원색 그대로의 색상을 간직하고 있어 불교적인 의미 등도 함께 되새겨볼만 하다.

그리고 문수사 복장직물에는 緞직물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직물을 볼 수 있으며 특히 4經紋羅조직의 紋羅직물, 金箔紋羅직물, 편금사를 사용하여 문양을 표현한 織錦직물 및 고려시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직물인 모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거의 대부분이 유색의 직물이며 복장직물의 50%가 문직물로서 다양한 문양이 표현되어 있다. 이것은 실증 유물자료가 부족한 고려시대의 직물산업에 대한 이해 및 문헌적인 자료를 충분히 뒷받침할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III. 직물의 유형 및 특성

문수사 복장직물은 모두 33점이며 그 중 일반직물은 28점, 오곡을 싣 직물은 5점이었으며 그 외 오색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33점의 복장직물 가운데는 견직물이 31점, 마직물이 2점이다.

1. 견직물

본 복장직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견직물은 대개가 유색직물로서 원색 그대로의 색상이 비교적 잘 보존되고 있었다. 견직물은 평직물 11점, 능직물 8점, 익직물 5점, 그리고 중조직직물 7점으로 총 31점이다.

1) 평직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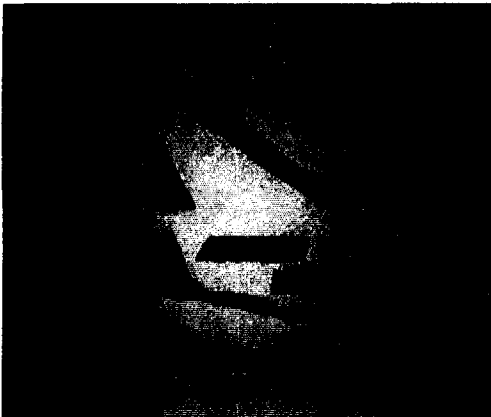
유물은 포폭 그대로의 상태로 보관되고 있는 것

도 있으나 대부분이 여러 가지 형태 즉 삼각형, 사각형, 마름모꼴, 7자형, 화살표 모양 등 다양한 형태로 잘라져 있는 것도 많았는데 여기에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사진 1). 특히 유물번호 11-2~11-5는 삼각형, 원형, 사각형 등의 형태로 잘라져 있으며 이것은 오곡(보리, 피, 녹두, 깨), 오색사 등을 넣은 보배병을 보관하는 후령통 위에 까는 오색천의 용도로 사용된 것이다(사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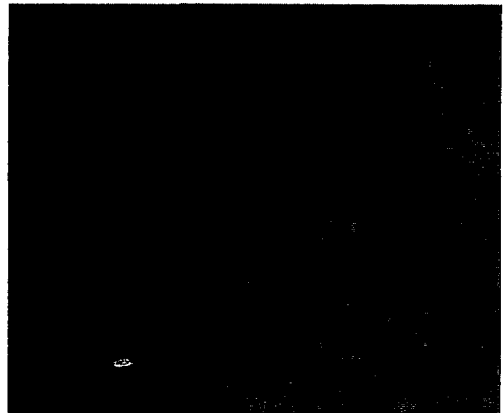
11점의 평면직물 중 유물번호 3-1은 유일하게 문양이 있는 것으로 염색에 의해 문양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정확한 염색방법은 현 상태에서는 파악하기가 어렵다. 유물은 바탕부위에 따라 색의 농담이 다른데 밀랍이 묻었다고 생각되는 부

위는 더 진하고 느낌이 뻣뻣한 것으로 보아 납힐염법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중간에 접힌 선을 중심으로 대칭무늬가 있는 것으로 보아 협힐염법을 사용한 것으로도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마치 실로 묶어 염색을 하여 염색후 풀면 묶었던 부분은 원색이고 그 외의 부분은 염색이 된 듯한 부분도 있어 교힐염법이 사용된 것으로도 추측할 수 있다. 또 직물의 표면에는 묵서를 적은 흔적이 있지만 그 내용도 역시 파악하기 힘든 상태이다(사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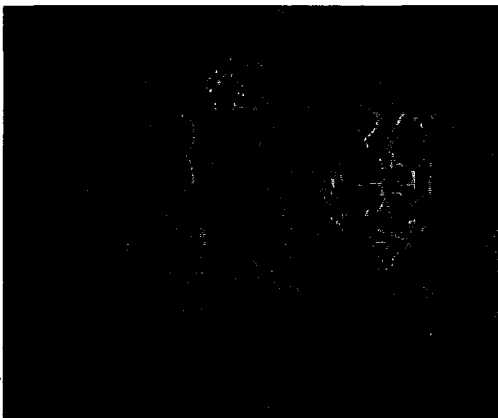
그리고 섬세한 결이 그 특징인 縞직물(유물번호 7-1)이 1점 있는데 이것은 경사가 2올 단위로 띄워져서 직조되어 있으며 한폭이 50cm이었다(사진 4). 紵는 紵에 비해서 경, 위사 굵기가 매우 가늘고 직물의 표면은 미백색이며 전체적으로 푸새를 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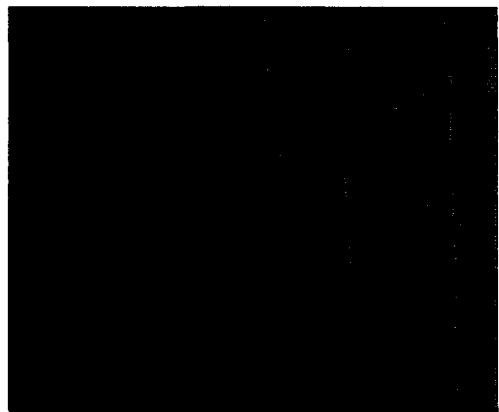
<사진 1> 여러 가지 모양의 직물(유물번호 3-2-1, 3-2-2)



<사진 3> 紋紵(유물번호 3-1)



<사진 2> 오곡싸는 직물(유물번호 11-1~11-5)



<사진 4> 縞(유물번호 7-1)

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직물은 해인사 금동비로자나불 복장의 초한삼⁴⁾의 직물과 포폭, 밀도, 재질감 및 군데군데 좁이 슨 흔적까지 대체로 유사하다. 평

견직물은 대부분이 유색직물로서 紬 11점, 絹 1점으로 분류하였으며 특성 분석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문수사 복장 평직물의 특성 분석결과

번 호		3-1	3-2-1	3-2-2	3-3	4	7-3
직물명		綾紬	綾	紬	紬	紬	紬
조 직	바탕	평직	평직	평직	평직	평직	평직
	무늬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실굵기 (mm)	경사	0.235	0.174	0.200	0.361	0.129	0.215
	위사	0.285	0.234	0.244	0.439	0.166	0.280
굵기비 (위사굵기/경사굵기)		1.213	1.345	1.22	1.216	1.287	1.302
실번수 (D)	경사	350.1	191.9	253.6	826.1	105.5	293.1
	위사	514.9	347.1	377.4	1021.6	174.7	496.9
실포임	경사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위사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밀 도 (가닥수 /inch)	경사	84	128	128	62	116	106
	위사	64	90	90	60	80	66
밀도비 (경사밀도/위사밀도)		1.32	1.42	1.42	1.03	1.45	1.61
직물의 C·F		41.48	47.35	51.95	50.73	30.83	45.06
두께 (mm)		0.176	0.088	0.094	0.194	0.262	0.153
문 양		염색으로 표현 형태는 알수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색		벽돌색 (2.31YR)	연벽돌색 (6.24YR)	벽돌색 (4.41YR)	암록색 (8.28G)	족색 (7.11B)	족색 (0.50PB)
크 기 (cm)		22×25	11×17	53.5×2의 다수	6×4 9×13	46×78	52×54
포 폭 (cm)		-	-	53.5	-	46	52
승 수 (升)				33.7		26.3	23.1

<표 1 계속> 문수사 복장 평직물의 특성 분석 결과

번호		7-5	11-2	11-3	11-4	11-5	7-1
직물명		紬	紬	紬	紬	紬	絹
조직	바탕	평직	평직	평직	평직	평직	평직
	무늬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실굵기 (mm)	경사	0.227	-	-	-	-	0.082
	위사	0.268	-	-	-	-	0.140
굵기비	(위사굵기 / 경사굵기)	1.181	-	-	-	-	1.709
실번수 (D)	경사	326.6	-	-	-	-	42.5
	위사	455.3	-	-	-	-	124.3
실꼬임	경사	없음	-	-	-	-	없음
	위사	없음	-	-	-	-	없음
밀도 (가닥수 / inch)	경사	108	110	106	120	116	112
	위사	84	70	82	80	68	50
밀도비	(경사밀도 / 위사밀도)	1.29	1.57	1.29	1.5	1.71	2.24
직물의 C·F		51.36	-	-	-	-	17.67
두께 (mm)		0.104	0.16	0.074	0.178	0.112	0.12
문양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색		적미황색 (8.25YR)	적미황색	미색	녹청색	미백색	미백색 (3.75Y)
크기 (cm)		28×54	10×17 삼각형	지름이 9.5 원형	7.1×9.6 사각형	9×11.5 사각형	50×54
포폭 (cm)		-	-	-	-	-	50
승수 (升)							27.6

紬織물의 경사굵기는 0.129~0.361mm(평균: 0.220mm), 위사굵기는 0.166~0.439mm(평균: 0.274mm)이고 경·위사 굵기비는 1.181~1.345(평균:1.252)로서 경사가 위사에 비해 1.2배 정도 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紬織물의 경사 밀도는 62~128/inch(평균:107.6/inch), 위사밀도는 60~90/inch(평균:75.8/inch), 경·위사의 밀도비는 1.03~1.61(평균:1.42)로 경사가 위사보다 1.4배 정도 치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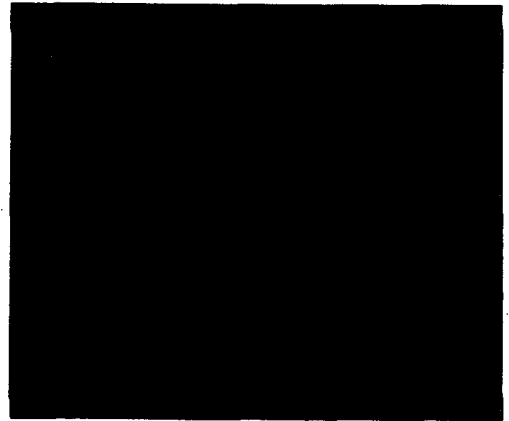
이 평견직물 중 오곡을 싼 직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포폭을 알 수 있는데 포폭이 46~54cm로서 비교적 광폭이다. 이것은 고려시대의 유물로 알려진 해인사 금동비로자나불 복장 평견직물의 포폭이 50~54cm⁵⁾, 1302년 아미타불 복장 평견직물의 포폭이 47~52.5cm⁶⁾인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이것을 조선시대 평견직물의 포폭이 대체로 28~35cm인 점과 비교하면 고려시대 평견직물의 포폭이 20~25cm가량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이미 해인사 금동비로자나불 복장 견직물의 연구에서 보고한 바와 같은 결과이다.

2) 능직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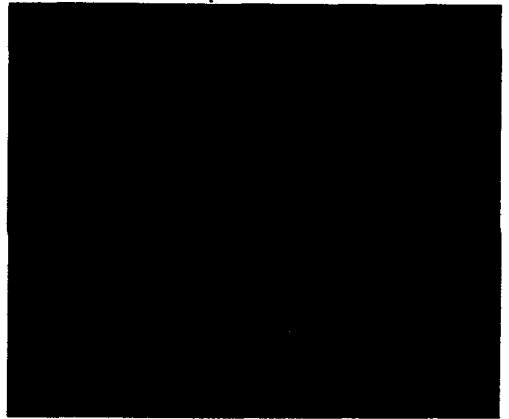
능직물은 모두 8점이며 平地綾紋綾 4점, 綾地平紋綾 1점, 綾地綾紋綾 1점, 綾地無紋綾 2점이었다. 평직물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유형으로 유물번호 2-8의 1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3매능이며 유물번호 2-1의 1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능직이었



<사진 5> 平地綾紋綾(유물번호2-6-1)



<사진 6> 平地綾紋綾(유물번호 2-1)



<사진 7> 綾地平紋綾(유물번호 2-2)

다. 그리고 능직물에서는 다른 평직물, 익직물, 중조 직 직물에서는 볼 수 없었던 실의 꼬임도 찾을 수 있다<사진 5>.

문양은 주로 작은 문양 등이 연속으로 반복되며 연화문, 화문 등의 식물문, 용문 등의 동물문, 귀갑문, 만자문 등의 기하문, 보문 등 매우 다양하다<사진 6~7>. 그리고 고려시대 아미타불 복장 직물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능직물 59점 중 1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문양이 있는 문직물이며 작은 문양이 한 단위가 되어 반복되는 연속무늬가 많은 것이 특징이었던 점⁷⁾과 유사하다.

<표 2>는 능직물의 특성분석결과이다.

<표 2 계속> 문수사 목장 능직물의 특성 분석 결과

번호		2-6-2-1	2-4	2-6-3	2-8
직물명		平地綾紋綾	綾地綾紋綾 (卍字紋綾)	綾地無紋綾	綾地無紋綾
조직	바탕	평직	3매 경능직	3매 경능직	4매 경능직
	무늬	3매경능직	3매 위능직	없음	없음
실굵기 (mm)	경사	-	0.178	-	0.188
	위사	-	0.261	-	0.280
굵기비 ($\frac{\text{위사굵기}}{\text{경사굵기}}$)		-	1.466	-	1.489
실번수 (D)	경사	-	200.82	-	224.0
	위사	-	431.81	-	496.9
실꼬임	경사	-	없음	-	0.61(t.p.i) 9.12(계수)
	위사	-	없음	-	없음
밀도 (가닥수 /inch)	경사	108	118	88	124
	위사	68	84	88	72
밀도비 ($\frac{\text{경사밀도}}{\text{위사밀도}}$)		1.59	1.40	1	1.72
직물의 C·F		-	46.89	-	47.48
두께 (mm)		?	0.228	-	0.252
문양		화문	만자문, 용문	없음	없음
색		비취색	쪽색	연옥색	진한 다황색
크기 (가로×세로, cm)		3×2의 2점	14.5×8	2×13	13.5×3 의 6점
포폭 (cm)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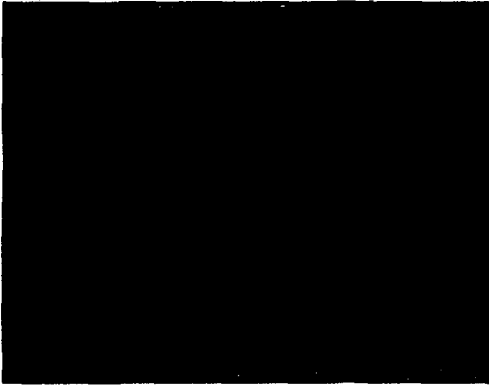
3) 익직물

익직물은 모두 5점으로 4점은 紋羅, 1점은 無紋羅 직물이다. (織金羅직물 2점은 중조직직물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이 중에 3점은 직물의 포폭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크기가 크며 보자기 등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며 2점은 오폭 등을 싸는 작은 주머니로 사용되었던 직물이다.

조직은 2, 3, 4經紋羅조직으로 다양하며 小花紋,

草花紋, 雲紋, 龍紋 등이 있다. 그 중에서 유물번호 9는 金箔紋羅 직물로서 바탕은 3경교라, 무늬는 평직으로 제직한 후 운문, 용문, 수파문 등을 금박처리하여 문양을 다시 표현한 것이다<사진 8~9>.



<사진 8> 금박문리(유물번호9)



<사진 9> 금박문리 조직(유물번호 9)

이와 유사한 金箔紋羅직물은 고려시대 아미타불 복장직물 중에도 2점 있는데 이것의 바탕은 4경교라직이며 금박으로 나타낸 문양은 봉황문, 여의문, 당초문, 기하문 등으로 다양하다.⁸⁾ 이와 같이 羅직물은 그 제직자체가 매우 복잡하므로 직물을 제직하면서 다양한 문양을 표현할 수가 없어서 제직후 그 위에 다시 2차가공기법을 사용해서 문양을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유물번호 7-2는 가로, 세로 모두 49cm의 정방형의 보자기로 4經紋羅조직으로 바탕과 무늬를 나타낸 것이다. 대개 4經紋羅 조직은 籠緞조직으로 바탕

을 만들고 網緞로 문양을 짜는 것이 일반적이다.⁹⁾ 유물번호 7-2의 조직도 마찬가지로의 경우이다<사진 10-11>.



<사진 10> 紋羅 (유물번호 7-2)



<사진 11> 紋羅조직(유물번호 7-2)

직물의 특성분석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4) 重組織직물

單組織의 직물 외에 중조직의 직물이 7점 있다. 이 중 2점은 絞經조직의 바탕에 片金絲 등을 다시 넣어 문양을 표현한 織金羅이며 3점은 능직바탕조직에 편금사 등을 넣어 문양을 표현한 織錦 직물이다. 그리고 나머지 2점은 단색의 중조직으로 단지 바탕과 두텁고 조직을 치밀하게 제직하기 위해 경사를 2가닥으로 제직한 경이중조직직물이다.

먼저 織金羅 직물은 羅직물을 제직한 후 위사와 위사 사이에 금사를 넣어 특정한 문양을 나타낸 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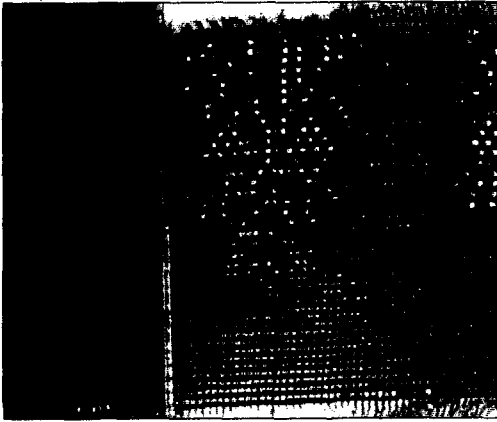
〈표 3〉 문수사 복장 의직물의 특성 분석 결과

번호		7-2	7-4	9	10	11-1
직물명		紋羅	紋羅	金箔紋羅	紋羅	無紋羅
조직	바탕	4경교라	2경교라	3경교라	4경교라	4경교라
	무늬	4경교라의 변형	3경교라	평직	-	없음
실굵기 (mm)	경사	0.108	0.132	0.187	-	-
	위사	0.235	0.110	0.207	-	-
굵기비 (위사굵기/경사굵기)		2.176	0.833	1.107	-	-
실번수 (D)	경사	73.94	110.45	221.67	-	-
	위사	350.07	76.7	271.62	-	-
실꼬임	경사	없음	없음	없음	-	-
	위사	없음	없음	없음	-	-
밀도 (가닥수/inch)	경사	224	60	68	152	168
	위사	48	54	66	40	26
밀도비 (경사밀도/위사밀도)		4.67	1.11	1.03	3.8	6.46
직물의 C·F		38.73	15.14	28.78	-	-
두께 (mm)		0.236	0.204	0.134	0.274	0.312
문양		소화문	초화문	운문, 용문, 수파문	세로줄무늬	없음
색		녹두색 (0.88GY)	미색 (2.03Y)	비취색 (0.69B)	흑색	아청색
크기 (가로×세로, cm)		49×49	55×28	19×47	조각	8.3×7.3 (십엽형)
포폭(cm)		49	55	-	-	-

로케이드(brocade)직물로서 일종의 중조직직물이다.¹⁰⁾ 이것은 필요무늬부분에만 별도의 복을 사용하여 무늬 끝나는 부분에서 다음 위사 즉 대체로 위로 혹은 아래로 바로 실을 걸어가며 수놓듯이 제작

하는 위이중직물이다. 이와 같은 특징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은 유물번호 5-3으로 바탕은 적색이며 2경교라 바탕조직에 위사와 위사 사이에 편금사를 넣어 문양을 나타낸 織錦 紋羅직물이다(사진 12).

문양은 가로 세로 모두 1.8cm의 작은 문양이 0.7cm 간격으로 연속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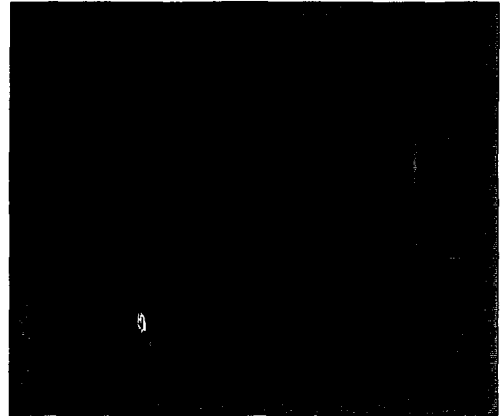
<사진 12> 織金羅 (유물번호 5-3)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발견된 織金 紋羅 직물이라고 생각된다.

이 외에도 중조직 직물이 3점 있는데 이것 역시 위중조직인 점은 織金 紋羅 직물과 같지만 편금사를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다. 즉 바탕 조직이 능직으로 羅 직물에 비해 투공율이 적기 때문에 織金 紋羅에서 편금사를 사용하는 방법과 달리 한쪽 가득하게 편금사를 사용한다. 즉 직물의 표면에는 문양이 드러나는 만큼 부직하고 다음 문양까지는 뒷면으로 금사가 숨어 있으며 다시 문양을 표현하기 위해서 표면에 금사가 부직되는 순서로 반복된다. 유물번호 6-1과 6-2는 3매 경능직 바탕에 편금(은)사를 사용하여 5, 6매 위능으로 원앙문양, 참새문양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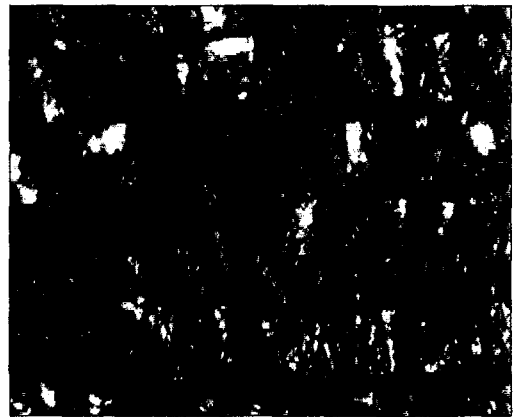
<사진 13> 織錦 표면(유물번호 6-1)



<사진 14> 織錦 裏面(유물번호 6-1)

그리고 유물번호 5-1은 직물 전체에 문양을 나타내려고 금사를 사용한 것은 아니고 가장자리 식서 부분에만 편금사를 끼워 넣은 직물이다. 오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금분은 거의 다 떨어져 나가고 금분이 부착되어 있던 종이의 표면만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바탕을 이루는 위사보다 편금사의 굵기가 조금 더 굵으며 바탕은 2경교라 조직 즉 오늘날의 사직 및 여직으로 연화문 등이 있는 紋羅 직물이다.

1302년 아미타불 복장직물 중에도 중조직으로 제작한 錦類는 7점 있었으나¹¹⁾ 이와 같이 의직을 바탕조직으로 하는 織金 紋羅 직물은 1점도 없었으며



<사진 15> 織錦 조직(유물번호 6-1)

[표 4] 문수사 복장 중조직직물의 특성 분석 결과

번호		5-1 (5-2)	5-3	6-1	6-2	8	2-5	2-7
직물명		織金羅	織金羅	織錦	織銀	織錦	經二重 裏付織	經二重 裏付織
조직	바탕	2경교라	2경교라	3매경능	3매경능	3매경능	앞:평직 뒤:3매경능	앞:평직 뒤:3매경능
	무늬	편금사로 부직	편금사로 부직	편금사로 6매경능	편은사로 5매위능	평직, 편금사로 6매위능	없음	없음
실굵기 (mm)	경사	0.126	0.096	0.128	0.152	0.164	0.319	0.280
	위사	0.297	0.430	0.292	0.282	0.249	0.256	0.274
	편금사	0.457	0.397	0.447	0.302	0.324	없음	없음
굵기비 ($\frac{\text{위사굵기}}{\text{경사굵기}}$)		2.357	4.479	2.281	1.855	1.518	0.803	0.979
실번수 (D)	경사	100.64	58.42	103.8	146.4	170.5	645.1	496.9
	위사	559.15	1172.2	540.5	504.1	393.0	415.4	475.9
실꼬임	경사	없음	없음	0.73(t.p.i) 7.36(계수)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위사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밀도 (가닥수 /inch)	경사	72	80	150	150	144	74	108
	위사	46	36	80	80	82	86	68
밀도비 ($\frac{\text{경사밀도}}{\text{위사밀도}}$)		1.57	2.22	1.875	1.875	1.756	0.860	1.59
직물의 C·F		24.84	25.29	46.63	49.54	48.09	49.83	53.39
두께 (mm)		0.17	0.26	-	0.326	0.456	0.354	0.3
문양		연화문 (四邊有)	-	원양문	참새문	국화문 (편금사), 점문	없음	없음
색		두록색 (5.39Y)	주홍색	쪽색	주황색	쪽색	주홍색 (8.93R)	쪽색 (8.20B)
크기(가로×세로, cm)		3.5×38.5 31×4.5	19×3	7.5×3	5.8×5.3	8.5×6	45×7.5	9×9
포폭 (cm)		-	-	-	-	-	-	-

나타낸 직금(은)직물이다. 유물번호 6-1 織錦직물은 1.7cm나비의 원앙문을 그리고 유물번호 6-2 織銀직물은 1.6cm나비의 참새문양을 가로로 연속적으로 배치한 것으로 그 앞면과 뒷면의 모습은 다음 <사진 13~14>와 같으며 그 조직은 <사진 15>와 같다.

유물번호 8은 3매 경능직 바탕에 평직으로 둥근 점무늬를 나타낸 것으로 여기에다 국화문을 표현하기 위해서 편금사를 다시 사용한 위중조직의 직금 직물이다. 편금사로 표현된 국화문양은 지름 1cm의 매우 작은 화문을 0.3cm간격으로 한단씩 연속적으로 배치하였다.

그리고 유물번호 2-5와 2-7은 바탕이 매우 두껍고 실의 굵기에 비해 조직이 특이할 정도로 치밀하

게 제작된 것으로 한면은 평직, 그 뒷면은 3매경능직으로 제작한 경이중직의 일종이다. 이렇게 제작하는 목적은 단지 직물의 두께 및 중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으로 表面의 경사와 위사 외에 또 다른 裏面 경사를 사용하여 안을 더욱 보강한 것이며 이 제작법은 두꺼운 직물을 만들고자 할 때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통 겉안에 다른 조직을 사용한다.¹²⁾

<표 4>는 중조직 직물의 특성분석결과이다.

2. 마직물

마직물 2점은 모두 저마직물 즉 모시이며 푸새를 한 것이다. 고려시대에는 우리나라 전통직물 가운데 비교적 저마직물의 비중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

<표 5> 문수사 복장 저마직물의 특성 분석 결과

번호		1-1	1-2
직물명		모시	모시
조직	바탕	평직	평직
	무늬	없음	없음
실굵기 (mm)	경사	0.201	0.287
	위사	0.230	0.230
굵기비	(위사굵기 / 경사굵기)	1.144	0.801
실포임	경사	없음	없음
	위사	없음	없음
밀도 (가닥수 / inch)	경사	56	56
	위사	46	60
밀도비	(경사밀도 / 위사밀도)	1.22	0.93
두께 (mm)		0.334	0.252
문양		없음	없음
색		소색(0.68Y)	연분홍색(7.98YR)
크기 (cm)		5×18	11×19
포폭 (cm)		-	-

다. 즉 「高麗史」에는 紵布, 白紵布, 紅紵布, 黃紵布, 細紵, 細紵布, 紋紵布, 毛施布가 이시기 중국으로 보내진 특산품으로 자주 기록되고 있으며¹³⁾ 「노걸대」¹⁴⁾에는 인삼, 말과 더불어 모시직물이 고려 상인의 주요 교역품이었으며 이 당시 모시의 제작기술은 20승의 세모시¹⁵⁾와 문저포¹⁶⁾까지 생산했을 정도로 뛰어났던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특산직물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총 33점의 복장직물 가운데 2점만이 모시직물이며 그것도 자그마한 조각천에 불과하여 포폭 역시 알 수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동일한 시기의 모시직물과 그 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포폭을 31cm로 가정하여 그 승수를 구해보면 8.54승 정도가 된다. 이것을 해인사 금동비로자나불 복장 저마직물 5점의 경·위사 밀도가 61.0~73.7×50.8~63.5/inch, 포폭이 31cm인 3점의 승수는 9.3~11.2(평균:10.1)인 것과 비교하면¹⁷⁾ 본 문수사 복장 마직물이 비교적 성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아미타불 복장 저마직물 14점의 경·위사 밀도가 68.6~86.4×53.3~86.4/inch인 것과 비교하여¹⁸⁾ 보아도 본 문수사 복장 마직물이 비교적 성글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표 5>는 저마직물의 특성분석결과이다.

IV. 결론 및 요약

1. 문수사 복장 직물은 일반직물 28점, 오곡을 싼 직물 5점으로 총 33점이며 이외에도 오색사 등이 있다. 총 33점의 직물은 견직물 31점, 저마직물 2점이며 이 중 견직물은 주자직물을 제외한 모든 유형 즉 평직물, 능직물, 익직물, 중조직 직물로 구성되어 있다.

2. 평직물은 모두 11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무늬가 없는 紬, 絹 외에도 염색으로 문양을 표현한 紋紬도 1점 있다. 이 평견직물 중 오곡을 싼 직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포폭을 알 수 있는데 대체로 포폭이 46~54cm로서 비교적 광폭이며 이것은 동 시기 해인사 금동비로자나불 복장 평견직물, 1302년 아미타불 복장 평견직물의 경우와 유사하며 조선시대 평견직물의 포폭보다는 대체로 20~30cm 가량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능직물은 平地綾紋綾이 4점, 綾地平紋綾 1점, 綾地綾紋綾이 1점, 綾地無紋綾이 2점으로 대부분이 3매능의 경능직이다. 평직물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문양은 주로 작은 문양 등이 연속으로 반복되고 있으며 연화문, 화문 등의 식물문, 용문 등의 동물문, 귀갑문, 만자문 등의 기하문, 보문 등으로 가장 다양한 문양을 볼 수 있는 유형이었다. 그리고 고려시대 직물 문양이 소형화되고 작은 문양이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은 이미 1302년 아미타불 복장유물의 선행연구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

4. 익직물은 2경, 3경, 4경조직 모두 있으며 무늬가 없는 無紋羅, 무늬가 있는 紋羅 직물 등 다양하다. 4경교라조직의 紋羅직물도 1점 있으며 초화문 등을 금박처리한 金箔紋羅직물도 1점 있다. 이 金箔紋羅 직물은 복잡한 羅직물이 제작되고 난 후 다시 화려한 문양을 표현하기 위한 2차 가공기법을 한 것으로 이미 1302년 아미타불 복장유물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5. 중조직으로 제작한 織金羅 2점, 織錦 3점이 있는데 織金羅 직물은 羅직물을 제작한 후 위사와 위사 사이에 금사를 넣어 특정한 문양으로 표현한 일종의 brocade직물로서 나타내려는 무늬부분에만 별도의 북을 사용하여 무늬 끝나는 부분에서 다음 위사 즉 대체로 위로 혹은 아래로 바로 실을 걸어가며 수놓듯이 제작한 위이중직물이다. 그리고 이러한 織金羅직물은 1302년 아미타불 복장직물 등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것으로 국내에서는 처음 발견된 것이다. 그리고 織錦직물은 바탕조직이 능직이며 무늬부분에는 금사 등을 부직하여 나타내고 다음 문양부분까지는 뒷면으로 금사가 표출되고 다시 문양을 표현하기 위해서 표면에 금사가 부직되는 방법으로 제작한 것으로 직폭 가득하게 금사가 사용된 것이 織金羅직물과 차이점이다. 위와 같은 중조직의 織錦類에 사용된 문양은 대체로 작은 식물문, 동물문이 단독으로 계속 반복되는 것이 특징이며 이것은 중국 원대의 유물과 비교하여 보아도 거의 비슷하다. 그리고 단지 직물을 두텁게 하려는 목적으로 경사를 이중으로 제작한 경이중직물 2점도 있다.

6. 총 33점의 직물 중 문양이 있는 문직물은 평직

물 1점, 능직물 6점, 익직물 4점, 중조직직물 5점으로 모두 16점이며 거의 50%에 해당한다. 이 중에는 한가지의 문양이 단독으로 나타나는 단독문양의 경우가 훨씬 많으며 단독문양 중에서도 식물문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 동물문, 기하문 등의 순서이다.

7. 직물의 표면색은 대체로 황색, 적색, 녹색, 흑색계이며 대부분의 직물이 원래 그대로의 색상을 잘 유지하고 있어 고려시대 색상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인구, 瑞山文殊寺 金銅如來坐像腹藏遺物, 미술자료 18호, 1975
- 안명숙, 文殊寺 遺物 袍와 織物類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24권 1호, 1986
- 김미자·조효숙, 1302년 아미타불복장물의 조사연구 -1302년 아미타불복장 직물의 분석-, 온양민속박물관, 1991
- 권영숙·이주영·장현주, 해인사 금동비로자나불 복장 복식과 고려후기 의복의 특성, 사단법인 성보문화재연구원, 1997
- 장현주, 조선시대 견직물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 원희정·장현주·백영미·최석철·권영숙, 안동 태사묘소장 고려후기 직물의 제작특성, 전통복식 학술총서 2, 한국전통복식연구회 경춘사, 2000
- 김영란, 중국 고대 織金錦繡와 金代衣裳, 국립민속박물관 민속학연구 제5호, 1998
- 민길자, 전통옷감, 대원사, 1998
- 민길자, 세계의 직물, 한림원, 1998
- 권영숙·신경철·장현주, 한국 고대 羅직물의 유형과 특성 -홍덕왕 복식금제에 나타난 羅직물을 중심으로-, 복식 51권 1호, 2001
- 日本纖維工業教育研究會 足立達雄 외, 纖維工學Ⅱ 織物, 實教出版株式會社
- 川島織物研究所, 川島織物研究 報告 第4報, -羅技私考-, 1960
- 高麗史
- 老乞大 朴通事 諺解, 서울:아세아문화사, 1973
- 고려사절요
- 김미자·조효숙, 1302년 아미타불복장물의 조사연구 -1302년 아미타불복장 직물의 분석-, 온양민속박물관, 1991
- 권영숙·이주영·장현주, 해인사 금동비로자나불 복장 복식과 고려후기 의복의 특성, 사단법인 성보문화재연구원, 1997
- 강인구, 瑞山文殊寺 金銅如來坐像腹藏遺物, 미술자료 18호, 1975
- 안명숙, 文殊寺 遺物 袍와 織物類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24권 1호, 1986
- 강인구, 앞논문, p.4
- 권영숙·이주영·장현주, 앞논문, p.162, p.176
- 권영숙·이주영·장현주, 앞논문, p.162
- 김미자·조효숙, 앞논문, p.133
- 김미자·조효숙, 앞논문, p.124
- 김미자·조효숙, 앞논문, p.121
- 川島織物研究所, 川島織物研究 報告 第4報, -羅技私考-, p.1960, pp.32~33
- 권영숙·신경철·장현주, 한국 고대 라직물의 유형과 특성 -홍덕왕 복식금제에 나타난 羅직물을 중심으로-, 복식 51권 1호, 2001, p.28
- 김미자·조효숙, 앞논문, p.130
- 日本纖維工業教育研究會 足立達雄 외, 纖維工學Ⅱ 織物, 實教出版株式會社, pp.55-56
- 高麗史 卷 第 23 世家 第 23, 高宗 2 辛卯 18년(1231년) 12월, 高麗史 卷 第 24 世家 第 23, 高宗 2 辛卯 18년(1231)년 12월, 高麗史 卷 第 25 世家 第 25, 元宗 1 癸亥 4년(1263년) 4월, 高麗史 卷 第 29 世家 第 29, 忠烈王 2 甲申 10년(1284년) 4월, 高麗史 卷 第 31 世家 第 31, 忠烈王 4 甲午 20년(1294년) 4월, 高麗史 卷 第 31 世家 第 31, 忠烈王 4 丙申 22년(1296년) 11월, 高麗史 卷 第 35 世家 第 35, 忠烈王 壬戌 9년(1322년) 7월, 高麗史 卷 第 133 列傳 第 46, 禎辛 1 丁巳 3년(1377) 3월, 老乞大 朴通事 諺解, 서울:아세아문화사, 1973, p.233
- 고려 忠穆王 2년 丙戌年(1346)년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고려인들이 중국을 여행하면서 중국 연경에서 본 사실들을 기록한 것으로 주로 여행과 교역 등에 관한 회화체의 글
- 고려사절요, 권 24, 충숙왕 9년 7월
- 고려사 권 제 89, 열전 제 2, 后妃 2
- 권영숙·이주영·장현주, 앞책, p.155
- 김미자·조효숙, 앞논문, pp.114~115